

□ 농식품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없이 육성하여,

- 내년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*에 따른 중소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준수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

* (부숙도 기준) 농경지에 퇴비 살포 시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- 퇴비화 기준 : 시설규모 1,500㎡ 미만(부숙 중기), 1,500㎡ 이상(부숙 후가완료)

- 또한,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통해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- 암모니아는 대기 오염물질 총 배출량(4,342천톤) 중 288천톤 (6.6%)이며, 이 중 농업부문에서 231천톤(축산 217천톤, 비료사용 20천톤)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*

*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 서비스(국립환경과학원, '16)

- 가축분뇨의 적절한 퇴비부숙 관리시, 분뇨내 질소 함량이 60%이상 감소하고 부숙과정을 통해 암모니아(NH₃)는 질산(NO₃⁻) 이온으로 분해되어 암모니아 농도가 66% 감소(3.53ppm → 1.2)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(가축분뇨 양분부하량 및 부하계수 산정 연구, 강원대학교, '16).

* 부숙(腐熟) :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(세균, 사상균, 방선균 등)에 의해 발효되어 가축분뇨에 있는 유기물(지방, 단백질, 질소화합물 등)이 분해과정을 거쳐 안정화(이산화탄소, 물, 무기물로 전환)된 상태(퇴비 : 부숙완료 단계)